

numbers 제 89호



주요 내용

2021. 03.26

- 이번 주 주제 : [통일 의식 비교] (일반 국민 vs 개신교인 vs 목회자)
 - '통일 필요하다', 목회자 90%, 일반 국민 53%
- 최근 언론보도 통계
 - [2020 북한의 주요 통계 지표]
 - 북한의 국민총소득(GNI) '남한의 2% 수준!'

우리는
더 나은 정보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고
믿습니다

목회데이터연구소 주간리포트

홈페이지 | www.mhdata.or.kr
E-mail | mhdata@mhdata.or.kr
전화 | 02.322.0726

기독교 통계

‘통일 필요하다’, 목회자 90%, 일반 국민 53%

분단은 한국 현대사에 민족적 상처를 안겼지만, 교회 측면에서 보면 부정적 영향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분단 이후에 북한 체제에서 핍박받던 교회와 교인들이 남한으로 대거 이주하면서 남한에서 교회를 재건하거나 남한 교회에 편입되면서 남한에서 교회가 크게 확장되는 데 기여했다. 통일과 북한에 대한 교회의 인식에는 이러한 역사적 경험이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

그래서 지금도 목회자들의 90%가 통일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개신교인들이 비개신교인보다 통일에 대해 더 적극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

분단 76년이 지난 현재, 분단 체제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이 사회의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통일에 대한 인식이 무뎠지긴 했지만(일반 국민의 경우 통일 필요성이 53%까지 떨어진 상태다) 아직도 통일은 우리 사회의 주요 화두이다. 통일이 민족적 감성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분단 체제가 지금도 우리 사회의 구조와 흐름에 매우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목회데이터연구소 주간리포트 [넘버즈] 제 89호에서는 통일에 대한 일반 국민과 개신교인 그리고 목회자의 인식과 태도를 비교하면서 통일을 교회가 어떤 관점에서 바라봐야 하는지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일러두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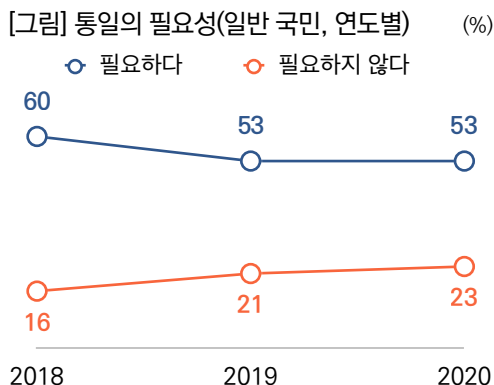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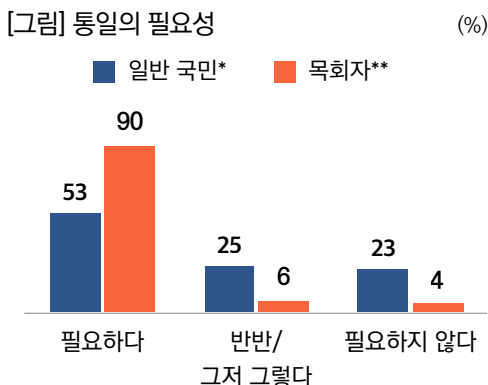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빈도는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 자료 출처(생산자)를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



일반 국민의 절반 정도만 '통일 필요성' 느껴!

-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물은 결과, 통일이 '필요하다'는 비율은 53%로 일반 국민의 절반 정도만 통일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명 중 1명(23%)은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했으며,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는 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률은 '19~29세' 35%, '30대' 43%, '40대' 59%, '50대' 63%, '60세 이상' 61%로 연령이 높을수록 통일의 필요성을 더 느끼고 있는 추이를 보인다.
- 같은 질문을 목회자에게 했을 때, 목회자는 대부분(90%)이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해 일반 국민에 비해 월등히 높은 필요성을 비쳤다.



*자료 출처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20 통일인식조사', 2020.10.13 (만19~74세 성인남녀 1,200명, 대면 조사, 2020.7.22.~8.17.), 5점 척도 질문
 **자료출처 : 송실대학교 기독교통일지도자훈련센터, '2020년 한국 교회 통일선교사역 실태조사', 2021.2.24 (목회자 500명, 온라인조사, 2020.10.8.~10.13.)

● 전 연령층에서 '통일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 해마다 증가 추세!

- 통일 필요성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통일 필요성이 낮아지는 경향이 뚜렷한데, '20대' 35%, '30대' 43%, '40대' 59%, '60대 이상' 61%로, 20대 젊은층의 통일 필요성 인식이 가장 낮은데, 이 연령층에서 지난 3년간 통일 필요성 인식 하락폭이 가장 컸다.
- 한편,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은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다.

[그림] 연령별 통일의 필요성 추이(필요하다 vs 필요하지 않다, 일반 국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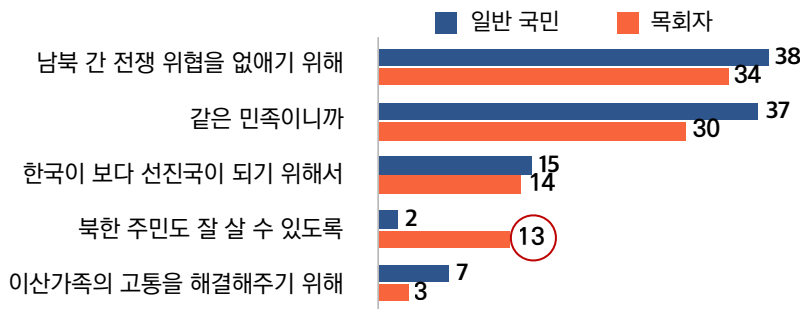
	통일 필요하다			통일 필요하지 않다		
	2018	2019	2020	2018	2019	2020
20대	54	41	35	18	25	35
30대	53	38	43	20	25	31
40대	59	54	59	15	19	19
50대	69	62	63	15	17	19
60대 이상	62	67	61	15	18	21

*자료 출처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20 통일인식조사', 2020.10.13 (만19~74세 성인남녀 1,200명, 대면 조사, 2020.7.22.~8.17.)
 ** 5점 척도 질문으로 여기서는 필요하다(매우+약간) 필요하지 않다(전혀+별로)만 제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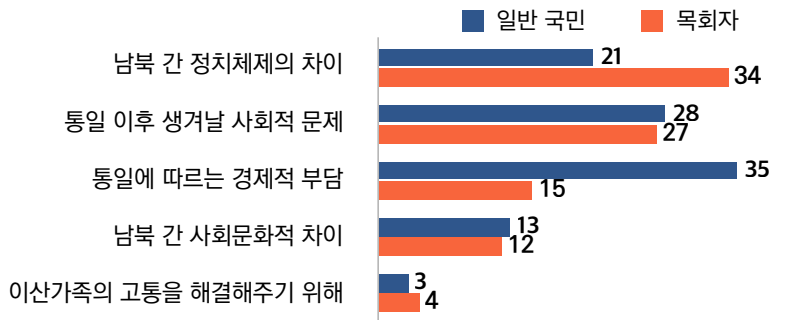
● 통일의 이유 1위는 ‘전쟁 위협 제거’

- 통일이 되어야 하는 이유로는 목회자와 일반 국민 모두 ‘전쟁 위협을 없애기 위해서’와 ‘같은 민족이니까’를 가장 많이 꼽았다. 목회자는 ‘북한주민도 잘 살 수 있도록’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꼽은 특징을 보여, 목회자의 이타적 특성을 보여준다.
- 통일이 되지 말아야 하는 이유로는, 목회자는 ‘남북간 정치체제의 차이’를 가장 많이 꼽았으며(34%), 일반 국민은 ‘통일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가장 많이 꼽았다(35%). 목회자는 체제의 차이에서 오는 정치적, 국민적 갈등을, 일반 국민은 경제적 타격 및 손실을 걱정함을 알 수 있다.

[그림] 통일이 되어야 하는 이유 (%)



[그림] 통일이 되지 말아야 하는 이유 (%)



*자료 출처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20 통일의식조사', 2020.10.13 (만19~74세 성인남녀 1,200명, 대면 조사, 2020.7.22.~8.17.)

**자료출처 : 송실대학교 기독교통일지도자훈련센터, '2020년 한국 교회 통일선교사역 실태조사', 2021.2.24 (목회자 500명, 온라인조사, 2020.10.8.~10.13.)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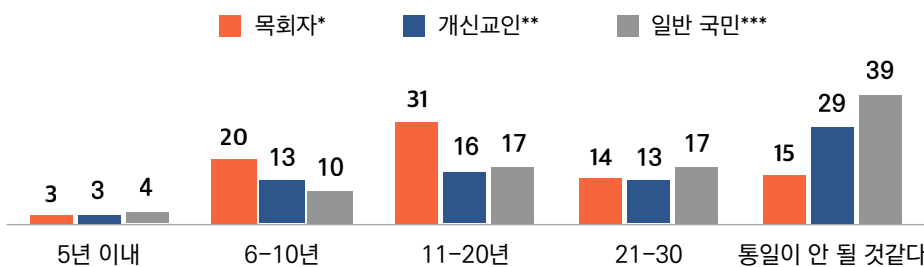


통일 예상 시기, 목회자가 가장 앞당겨 예상하고 있어!

- 통일 예상 시기는 목회자의 절반 이상(54%)이 '20년 이내'를 예상했고, 개신교인과 일반 국민은 3분의 1 정도가 '20년 이내'를 예상했다.
- '통일이 안 될 것 같다'고 예상한 비율은 '일반 국민' 39%, '개신교인' 29%, '목회자' 15% 순으로 세 그룹 간 큰 격차를 보였다.
- 목회자가 개신교인과 일반 국민보다 통일에 대해 낙관적으로 예측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통일 예상 시기

(%)



*자료 출처: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총회, '코로나19 시대 한국 교회 신생대계 조성 및 미래전략 수립을 위한 조사' (만19세 이상 개신교인 1,000명, 일반 국민 1,000명, 목회자 600명, 온라인조사, 2020.8.13.~12.3.)

● 통일에 대한 염원, 목회자/개신교인이 일반 국민보다 더 크다

- 통일 추진 방식에 있어서는 '목회자', '개신교인', '일반 국민' 모두 '통일을 서두르기보다 여건이 성숙하기를 기다려야 한다'를 가장 많이 응답해, 점진적 통일을 가장 많이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일반 국민의 1/5은 '현재대로가 좋다'고 응답했으며, 목회자 및 개신교인의 1/5은 '가능한 빨리 통일되는 것이 좋다'고 응답해, 목회자와 개신교인이 통일에 대한 염원이 더 큼을 알 수 있다.

[그림] 통일 추진 방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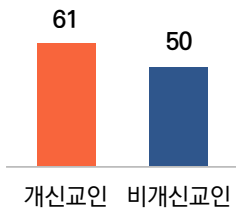


*자료 출처: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총회, '코로나19 시대 한국 교회 신생대계 조성 및 미래전략 수립을 위한 조사' (만19세 이상 개신교인 1,000명, 일반 국민 1,000명, 목회자 600명, 온라인조사, 2020.8.13.~1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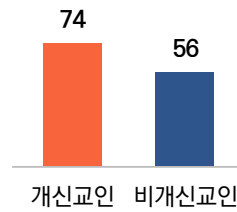
● 개신교인, 비개신교인에 비해 ‘통일 비용 내겠다’는 의향을 더 높아!

- 개신교인과 비개신교인을 대상으로 통일을 위해 치러야 하는 사회적 비용을 부담할 의향에 대해 조사한 결과, ‘개신교인’ 61%, ‘비개신교인’ 50%로, 개신교인이 비개신교인에 비해 통일 비용 부담 의향이 더 높게 나타났다.
- 또한, 한국 교회가 제 3국에 있는 탈북민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 ‘개신교인’의 74%, ‘비개신교인’의 56%가 찬성 의견을 보여, 개신교인이 비개신교인보다 더 적극성을 나타냈다.
- 전반적으로 비개신교인에 비해 개신교인이 통일과 북한에 대해 보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입장을 알 수 있다.

[그림] 통일 비용 부담 의향 (%)



[그림] 한국 교회의 제 3국에 있는 탈북자 지원 찬성률 (%)



*자료 출처 : 한국교회총연합, ‘공교회 및 한국 교회의 공적역할에 대한 여론조사’(만19세 이상 개신교인/비개신교인 각1,000명, 온라인조사, 2020.11.27.~12.7.)
 **4점 척도로 질문으로 긍정률(매우+약간) 비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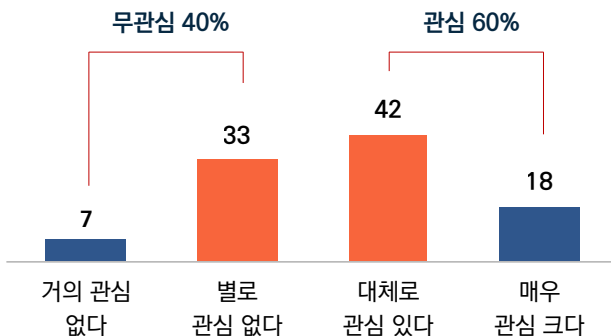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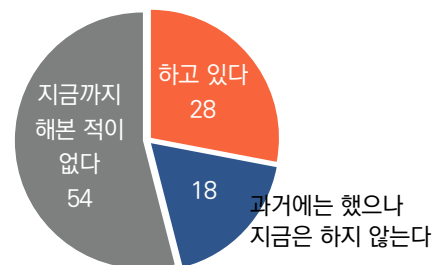
목회자, 통일/북한 선교 관련 ‘관심과 실천’ 격차 크게 나타내!

- 목회자들에게 현 사역 교회가 통일/북한 선교에 얼마나 관심 있는지 질문했는데, ‘관심 있다’ 60%. ‘관심 없다’ 40%로 관심을 갖고 있는 목회자가 절반이 훨씬 넘었다.
- 목회자가 일반 국민에 비해 북한과 관련한 경험률이 월등히 높으나, 목회자의 절반(54%)은 통일/북한 선교 실시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에 통일/북한 선교를 실시했으나 중단한 경우는 18%, 현재 실시하고 있는 경우는 28%로 응답했다.

[그림] 현 사역 교회의 통일/북한 선교에 대한 관심도(목회자) (%)



[그림] 통일/북한 선교 실시 여부(목회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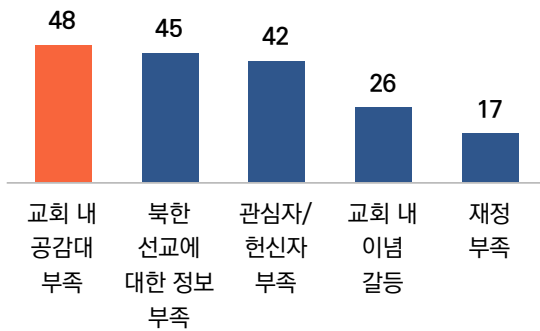


*자료출처 : 숭실대학교 기독교통일지도자훈련센터, ‘2020년 한국 교회 통일선교사역 실태조사, 2021.2.24 (목회자 500명, 온라인조사, 2020.10.8.~1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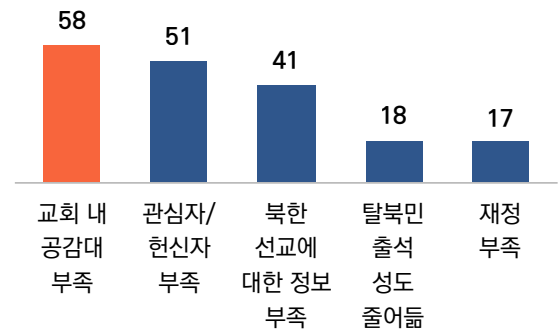
● 통일/북한 선교의 걸림돌은 교회 내 ‘공감대 부족’

- 목회자의 통일/북한 선교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은 ‘교회 내 공감대 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북한 선교를 하고 있는 목회자의 48%는 ‘교회 내 공감대 부족’을 사역의 어려움으로 꼽았고, 통일/북한 선교를 중단한 목회자의 58%는 ‘교회 내 공감대 부족’을 사역 중단 이유로 꼽았다.
- 통일/북한 선교 활성화를 위해서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통일/북한 선교에 대한 공감대와 필요성을 일깨우는 것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통일/북한 선교 사역의 어려움(1+2순위, 통일/북한 선교 하는 목회자) (%)



[그림] 통일/북한 선교 중단 이유(1+2순위, 통일/북한 선교 중단한 목회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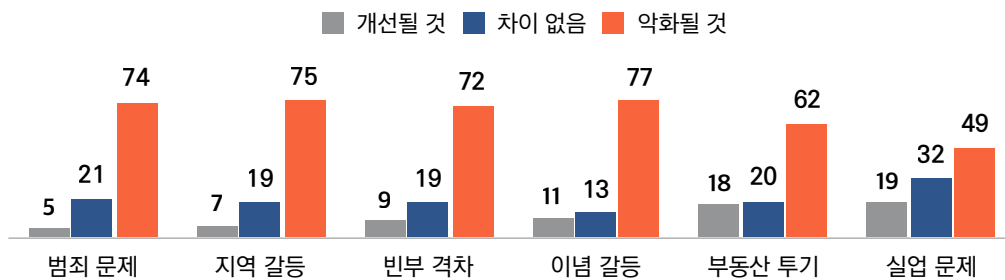


*자료 출처 : 송실대학교 기독교통일지도자훈련센터, '2020년 한국교회 통일선교사역 실태조사', 2020.11(목회자 500명, 온라인조사, 2020.10.8.~10.13.)

● 일반 국민, 통일 이후 사회 문제가 더 악화될 것이라는 인식 높아

- 이러한 공감대 부족은 북한에 대한 인식과도 연관이 있다. 일반 국민에게 각종 사회 문제가 통일 이후 얼마나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는지 조사한 결과, 설문에 제시한 대부분의 사회 문제에서 개선에 대한 기대보다 악화 우려가 더 높게 나타났다. 특히 ‘이념 갈등’, ‘지역 갈등’, ‘범죄 문제’ 등은 일반 국민 4명 중 3명이 악화를 우려하고 있을 만큼, 통일로 인한 사회 문제 개선 기대치가 낮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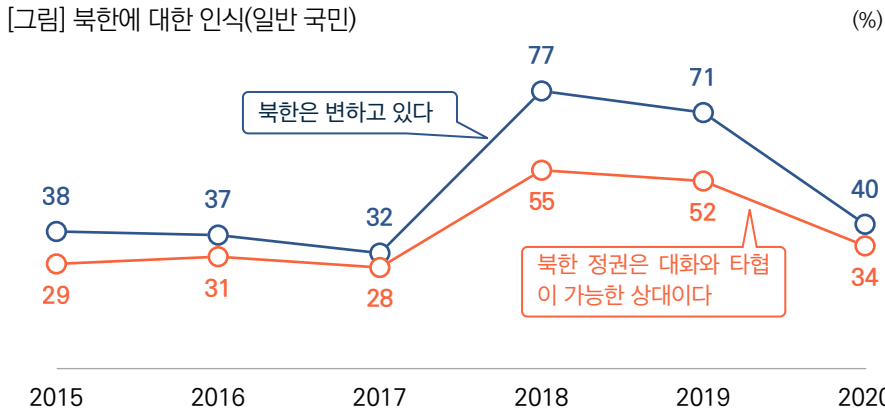
[그림] 통일 이후 사회 문제별 개선에 대한 기대(일반 국민) (%)



*자료 출처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20 통일인식조사', 2020.10.13 (만19~74세 성인남녀 1,200명, 대면 조사, 2020.7.22.~8.17.)

● 2018년 이후 일반 국민의 북한 신뢰도 하락 추세!

- 북한에 대한 신뢰도 및 변화 인식 역시 2018년 이후 크게 감소해, 2020년 조사 결과 일반 국민 중 1/3(34%)만 '북한 정권은 대화와 타협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북한은 변하고 있다'는 인식도 작년 대비 31%p나 크게 감소한 40%에 그쳤다.
- 이와 같은 북한 신뢰도 하락과 부정인식 증가 때문에 통일/북한 선교에 대한 당위성과 공감대를 얻기가 더 힘든 것으로 보인다.



*자료 출처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20 통일인식조사', 2020.10.13 (만19~74세 성인남녀 1,200명, 대면 조사, 2020.7.22.~8.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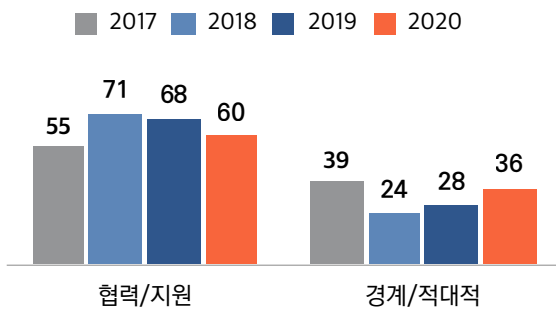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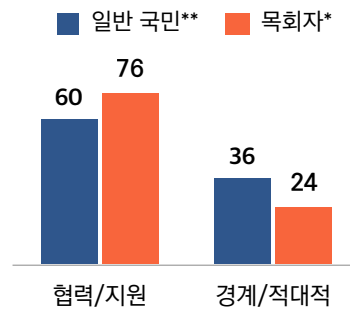
일반 국민 북한에 대한 긍정적 인식, 2018년 이후 점점 낮아져!

- 일반 국민의 북한과 관계에 대한 인식 역시 점점 부정적으로 변하고 있다. '협력/지원' 관계라는 인식 비율은 줄고, '경계/적대적'이라는 인식은 늘어나고 있다. 2020년 조사 결과, 북한을 '협력/지원' 관계로 인식하는 비율은 60%로 전년 대비 8%p 감소했고, '경계/적대적' 관계로 인식하는 비율은 36%로 전년 대비 8%p 증가했다.
- 목회자의 인식은 조금 다르다. 목회자 중 북한과의 관계가 '협력/지원 관계'라고 생각하는 비율은 76%로 일반 국민보다 16%p 높은 수치를 보여준다.

[그림] 북한과 관계에 대한 인식(일반 국민*) (%)



[그림] 북한과의 관계에 대한 인식 (일반 국민* vs 목회자**, 2020년) (%)



*자료 출처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20 통일인식조사', 2020.10.13 (만19~74세 성인남녀 1,200명, 대면 조사, 2020.7.22.~8.17.)

**자료출처 : 송실대학교 기독교통일지도자훈련센터, '2020년 한국 교회 통일선교사역 실태조사', 2021.2.24 (목회자 500명, 온라인조사, 2020.10.8.~1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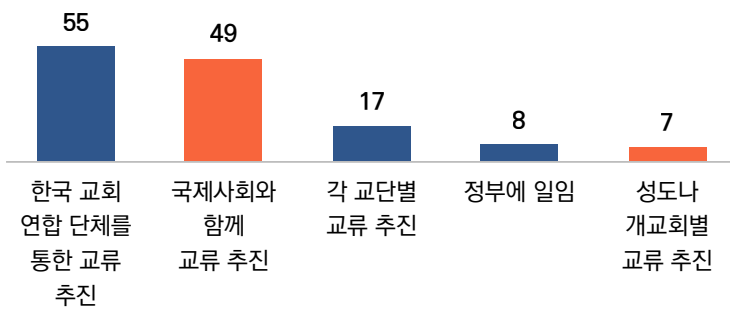
5



목회자 절반 이상, '연합 단체'를 통해 통일 교류 추진해야!

- 목회자가 생각하는 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개신교의 바람직한 활동 방식으로는 '한국 교회 연합단체를 통한 교류 추진'이 5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국제사회와 함께 교류 추진'도 49%로 높게 응답됐다. 반면, '각 교단별 추진', '성도나 개교회별 추진'은 상대적으로 낮아, 목회자들은 한국 교회 전체적인 연합이나 사회와 연계한 추진을 바람직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개신교의 바람직한 활동 방식 (1+2순위, 목회자 대상)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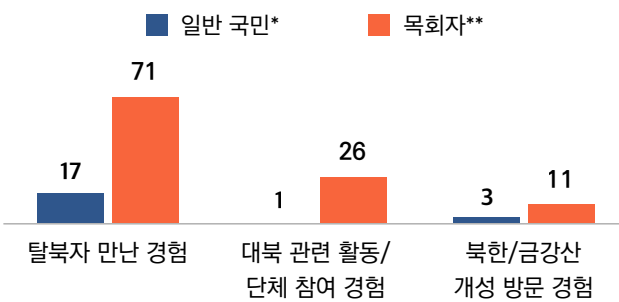


*자료 출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총회, '코로나19 시대 한국 교회 신생태계 조성 및 미래전략 수립을 위한 조사', (목회자 600명, 온라인조사, 2020.11.22.~12.03.)

● 목회자의 북한 관련 경험률, 일반 국민보다 월등히 높아!

- 북한과 관련된 경험 여부를 몇 가지 항목에 대해 묻은 결과, '목회자'의 71%가 '탈북자를 만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해, '일반 국민'(17%)보다 4배 이상 높은 탈북자 접촉률을 보였으며, '대북 관련 활동/단체 참여 경험'도 목회자(26%)에게서 월등히 높았다. '북한 방문 경험'도 일반 국민보다 목회자가 3배 이상 높았다.

[그림] 북한 관련 경험 유무(항목별) (%)



*자료 출처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20 통일인식조사', 2020.10.13 (만19~74세 성인남녀 1,200명, 대면 조사, 2020.7.22.~8.17.)

**자료출처 : 송실대학교 기독교통일지도자훈련센터, '2020년 한국 교회 통일선교사역 실태조사', 2021.2.24 (목회자 500명, 온라인조사, 2020.10.8.~10.13.)



시사점

우리나라 사회적 이슈 가운데 남북 관계만큼 온탕과 냉탕을 오가는 것은 없을 것이다. 지금은 남북 관계가 얼어붙어서 전혀 교류도 없지만 2000년 6월 제1차 남북정상회담, 2007년 10월 제2차 남북정상회담 전후로 남북관계는 따뜻한 바람이 불었다. 특히 2018년 4월, 5월, 8월에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이 잇달아 열리면서 한반도가 감동의 물결로 뒤덮이고 남북간의 통일이 멀지 않은 것같이 흥분했었다. 하지만 그 후 오래지나지 않아 남북간에 긴장과 대결 국면이 다시 찾아 오는 일이 반복되었다

통일은 우리 민족을 동포애와 적대적 감정을 모두 놓고 있는데, 우리는 통일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나? 크게 2가지 입장이 있다. 우선은 통일을 ‘당위성’으로 이해하는 입장이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통일이여 어서 오라~’라는 노래가 상징하듯 통일을 ‘같은 민족’으로서 민족적 과제로 받아들이는 입장이다. 통일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3쪽), 통일은 자유로운 교류로만 그쳐서는 안 되고 국토적, 국가적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3쪽). 아직 우리 국민의 다수는 통일을 이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

두 번째 입장으로는 통일을 조건적으로 받아 들이는 것이다. 통일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전쟁 방지’, ‘경제적 발전’ 등 특정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것이다(4쪽). 통일에 대해 현실적 이익의 관점에서 이성적인 접근을 하는 것인데, 우리 국민은 통일을 꼭 국가 체제의 통일로만 이해하지 않고 자유로운 교류도 통일로 이해하고 있다. 이들은 통일에 대한 필요성도 절실하게 느끼지 않는다(3쪽). 이 입장은 소수이지만 점차 늘고 있다.

통일에 대한 첫 번째 입장이 민족적 당위성이고 두 번째 입장은 수단적 합리성이라면 목회자에게서는 제3의 입장이 보이고 있다. 통일이 되어야 하는 이유 가운데 ‘북한 주민도 잘 살 수 있도록’이라는 이유는 일반 국민은 2% 밖에 응답하지 않았으나 목회자는 13%나 응답해서 큰 차이를 보인다. 북한 주민에 대한 이타적 접근이 바로 제3의 입장인 것이다. ‘북한 주민도 잘 살도록 하기 위해’ 통일을 해야 한다는 목회자들의 인식은 북한 주민들이 남한과 같은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개인의 가치가 존중받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함께 누리기를 원하는 공허한 마음이 일반인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개신교인은 일반 국민보다 통일에 대해 보다 더 적극적이다. 최근 한교총 조사 결과 북한을 탈출하여 제3국에 머무르고 있는 수많은 탈북자들에 대해 한국 교회가 도와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 개신교인 74%, 비개신교인 56%가 찬성했다(6쪽). 한국 교회에 비판적인 일반 국민들도 교회가 제3국의 탈북자를 돕는 것에 대해 절반이 넘게 동의를 하고 있는 것이다. 차제에 한국교회가 통일/북한선교 관련 아젠다를 한국 사회에서 주도적으로 끌고 가기를 바란다.

최근 언론 보도 통계

1. <2020 북한의 주요 통계 지표>
북한의 국민총소득(GNI) '남한의 2% 수준'

언론 보도 및 이슈 큐레이션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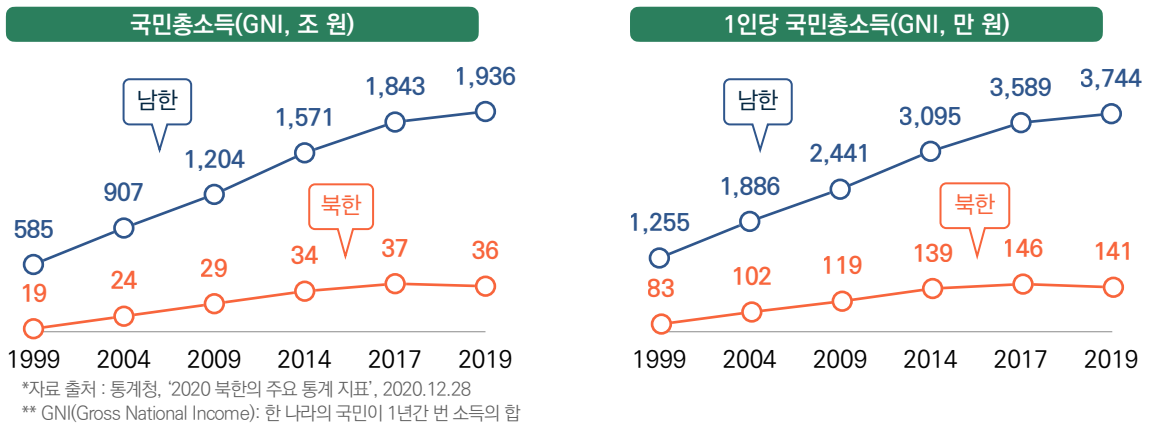
2020 북한의 주요 통계 지표



북한의 국민총소득(GNI) ‘남한의 2% 수준!’

- 최근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0 북한의 주요 통계 지표’ 결과에 따르면, 2019년 북한의 ‘국민총소득(GNI**)’은 36조원이었는데, 이는 남한 1,936조 원의 2% 수준으로 남한에 비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현저하게 낮았다.
- 국민총소득을 인구수로 나눈 ‘1인당 국민총소득’에 있어서는 북한은 141만 원으로 남한(3,744만 원)의 4% 수준으로 해마다 그 격차는 더 심해지고 있다.
- 북한의 1인당 국민총소득은 2017년까지 상승하다가 그 이후 하락세를 보여, 유엔 제재 하에서 최근 수년간 경제적 어려움을 반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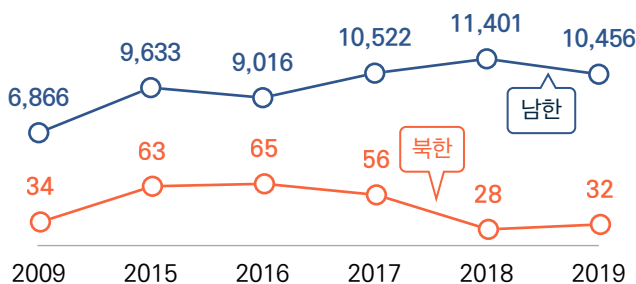
[그림] 남·북한 경제력 비교(연도별, 국내총생산 vs 국민총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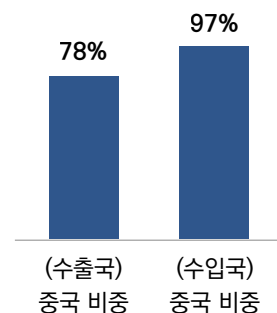
● 2019년 북한 대외 무역 총액, 남한의 0.3% 수준!

- 2019년 북한의 대외 무역 총액은 32억 달러로 남한(10,456억 달러)의 0.3% 수준으로 매우 큰 차이를 보였다.
- 북한의 대외 무역 규모는 2016년까지 상승하였고, 대북 제재 영향으로 이후 대폭 떨어지다 2018년 이후 조금씩 회복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림] 연도별 남·북한 무역액(수출+수입) 비교 (억 달러)



[그림] 북한의 수출입 대상 국가 중 중국 의존도



*자료 출처 : 통계청, '2020 북한의 주요 통계 지표', 2020.12.28.(북한은 KOTRA '북한 대외무역동향'
**무역액=수출액+수입액, 남북한 교역액은 제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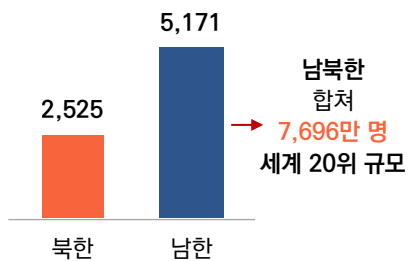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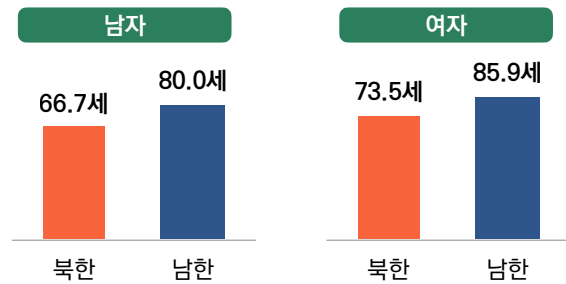
2019년 북한 인구 2,525만 명, 남한의 절반 수준!

- 2019년 북한 인구는 총 2,525만 명으로 남한 5,171만 명의 절반 수준으로 파악되었다. 남한과 북한 인구를 합하면 총 7696만 명으로 세계 20위 규모이다. 북한의 기대 수명은 '남자' 66.7세, '여자' 73.5세로 남한과 비교하면 '남자'는 13.3세(남한 80세), '여자' 12.4세(남한 85.9세)가 각각 낮았다.

[그림] 2019년 남·북한 인구 (만 명)



[그림] 2019년 남·북한 기대 수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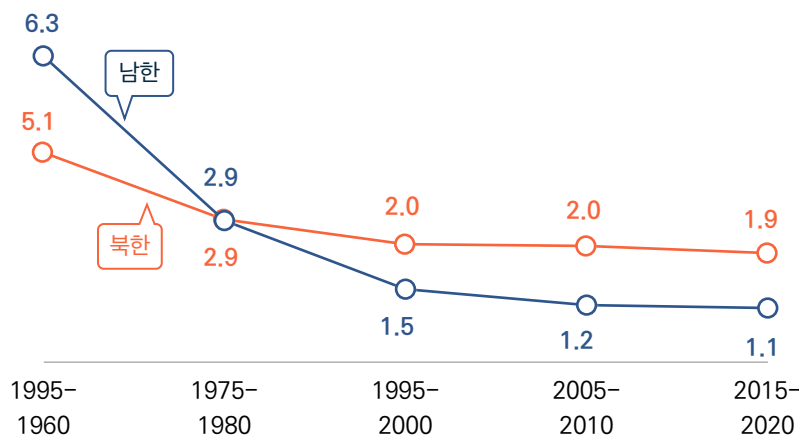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통계청, '2020 북한의 주요 통계 지표', 2020.12.28

● 북한의 합계 출산율(2015~2020년) 1.9명으로 남한(1.1명)보다 크게 높아!

- UN에서 추계한 북한의 2015~2020년 '합계 출산율'은 1.9명으로 같은 기간 '남한'의 1.1명보다 0.8명 더 높았다. 80년대까지는 남한이 북한보다 더 높았지만 이후 줄곧 북한이 높았다. 양측 모두 '합계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그림] 남북한 합계 출산율(연도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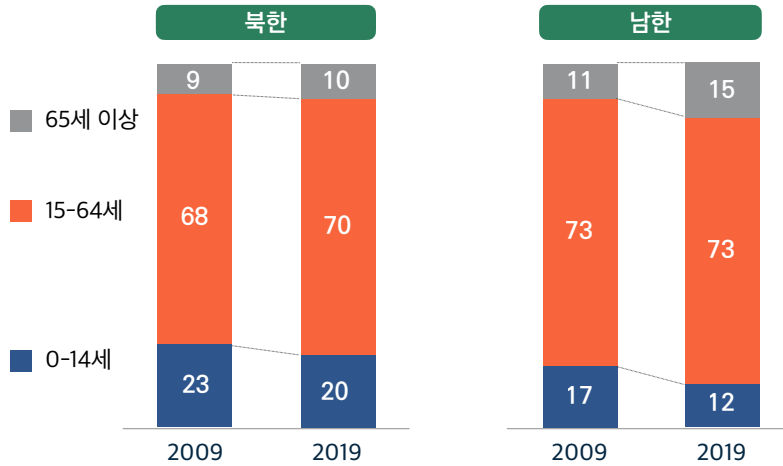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통계청, '2020 북한의 주요 통계 지표', 2020.12.28.(UN,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19 Revision', 2019.6.17.)

● 북한의 유소년 인구 비중, 남한의 두 배 가까이 높아!

- 2019년 연령별 분포는 남·북한 모두 10년 전보다 '14세 미만' 유소년 인구 비중은 줄어들고, '65세 이상'은 늘어나고 있는데, '14세 미만'의 경우 북한이 남한보다 8%p 높고, 반대로 남한의 고령화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65세 이상'은 남한이 북한보다 5%p 더 높게 나타났다.
- 전체적으로 2019년 기준 북한의 유소년 인구 비중(20%)이 남한(12%)보다 두 배 가까이 많다.

[그림] 2019년 남·북한 연령 계층별 인구(2009 vs 2019) (%)



*자료 출처 : 통계청, '2020 북한의 주요 통계 지표', 2020.12.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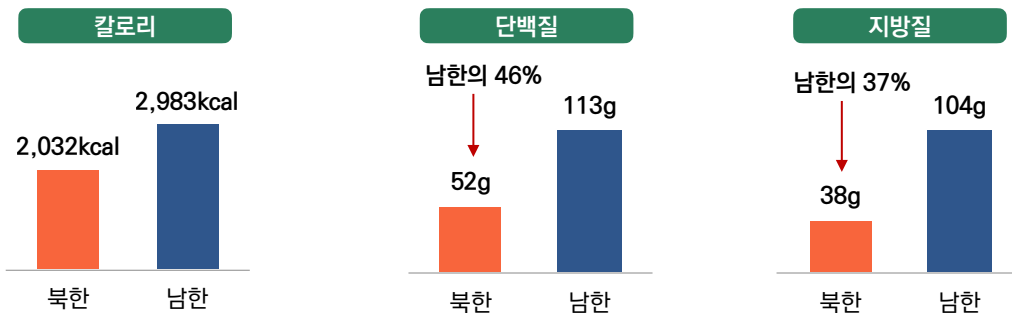
3



북한의 1인당 하루 단백질/지방질 공급량 남한의 절반에도 못미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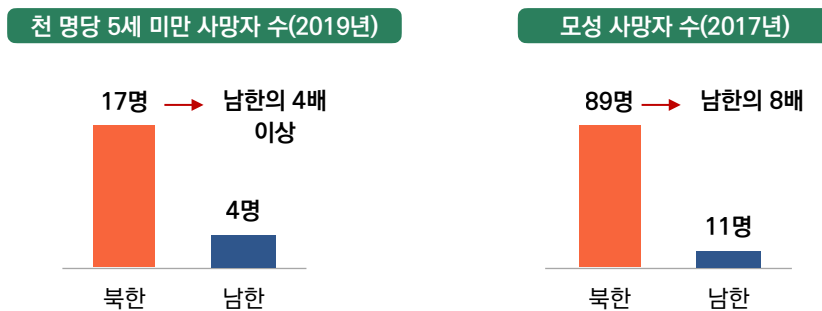
- 유엔식량농업기구에 따르면, 2017년 북한의 '1인당 하루 영양 공급량'은 2,032kcal로 남한(2,983kcal)의 68% 수준이었다. 특히 영양의 주요 공급원인 '단백질'은 남한의 46%, '지방질'은 37% 밖에 공급이 안돼 전체적으로 남한에 비해 건강 영양 상태가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 2019년 북한의 '출생아 천 명당 5세 미만 사망수'는 17명으로 남한의 4명보다 4배 이상 많았고, 2017년 기준 '모성 사망수'(태어난 아기 10만 명당 임신 출산 관련 임신부 사망 수)는 89명으로 남한의 11명보다 무려 8배가 많았다.
- 이러한 통계 자료로 볼 때, 북한은 인간 생명과 관련한 건강과 보건 분야에서 매우 심각한 상태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남·북한 1인당 하루 영양 공급량(2017년 기준, 칼로리 vs 단백질 vs 지방질)



*자료 출처 : 통계청, '2020 북한의 주요 통계 지표', 2020.12.28.(북한은 FAO, 'https://www.fao.org', 남한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수급표')

[그림] 남·북한 출산 관련 사망자 수



*자료 출처 : 통계청, '2020 북한의 주요 통계 지표', 2020.12.28.(북한은 UNICEF, 남한은 통계청, 모성 사망 수는 UN, http://unstats.un.org/sdgs)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정치

[현 정치구도 ‘국정지원 39% - 정부견제 53%’, 견제론 최고치](#)

플리뉴스_2021.03.24.

일반

[\[2020 한국의 사회지표\]. 국민 5명 중 1명 "외롭다"](#)

연합뉴스_2021.03.25.

사회

[2030세대 53% “아이 낳을 생각 없어”](#)

조선일보_2021.03.23.

[4명 중 1명 반려동물과 산다...댕댕이 양육비 월 11만원](#)

중앙일보_2021.03.22.

[한국인 10명 중 4명 무단횡단...음주 차량에 매일 1명 숨진다](#)

중앙일보_2021.03.25.

[벼랑 끝 몰린 지방대, 영호남 이어 충청까지 대규모 미달 사태](#)

한국일보_2021.03.22.

경제

[올해 비트코인 열풍은 30대男이 주도했다](#)

매일경제_2021.03.22.

[주식계좌 4,022만개, '1인 1계좌' 시대](#)

중앙일보_2021.03.25.

[세계 직장인 73% “나 다시 안돌아갈래, 사무실”](#)

조선일보_2021.03.23.

국제

[미국갤럽, "미국인 77%, 북핵을 '중대 위협' 인식"...사이버테러 이어 2번째](#)

연합뉴스_2021.03.24.

[코로나 백신 '빈부격차'...전세계 인구 16% 부자나라가 접종인구의 56% 차지](#)

경향신문_2021.03.23.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코
로
나
1
9

[세계 13개국 조사, 잠자기 전후 84%가 스마트폰 사용](#)

한국일보_2021.03.21.

[코로나 휩쓴 작년 한국 행복지수 95개국 중 50위](#)

연합뉴스_2021.03.20.

[40대 절반, 코로나 통금에 만족... "회식 줄고 개인시간 늘었다"](#)

동아일보_2021.03.22.

[현대研 "코로나로 그냥 쉬는 청년층 '니트족' 급증"](#)

연합뉴스_2021.03.21.

[직장인 10명 중 7명 "코로나19로 올해 임금 동결"](#)

뉴시스_2021.03.23.

[배달쓰레기 '하루 700만개' 시대... '착한포장용기' 찾는 착한 소비자 늘어](#)

뉴스1_2021.03.21.

목회데이터연구소 후원자

후원 교회 | 강남중앙침례교회, 거룩한빛광성교회, 고현교회, 과천교회, 광주다일교회, 꿈마을엘림교회, 노량진교회, 당진동일교회, 대구내일교회, 밀양남부교회, 백주년기념교회, 베다니교회, 새에덴교회, 서현교회, 서울서문교회, 성락성결교회, 소망교회, 송학대교회, 수원중앙침례교회, 안산제일교회, 안성중앙교회, 여의도순복음교회, 예향교회, 연동교회, 오류동성결교회, 오륜교회, 이룸교회, 일산광림교회, 일산세광교회, 주안장로교회, 중앙성결교회, 진주삼일교회, 창동염광교회, 포항제일교회, 하나마을교회, 한국중앙교회, 한성교회, 한소망교회(가나다 순)

후원 기관 | 고려신학대학원, 교회성장연구소, (재)기독교선교학술,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 (사)사단법인 아시안미션, 서대문ESP, 서울노회아동부연합회(예장통합), (사)새길과새일, 아드폰테스(예장 통합 목회자 모임), 알파코리아,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장로회신학대학교, 제이제이경제연구소, 지앤컴리서치, 한국 교회탐구센터,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한목회, 한빛누리, 한국기부문화연구소, (재)CBS, CBMC 광주지식포럼, CBMC 행복한지회, CCC 사역연구(가나다 순)

후원 기업 | (주)그랑블루, 동광에스아이, (주)마뜨, (주)바이텍테크놀로지, (주)셀파 C&C, (주)시스코프, (주)예중세무법인, (주)자연인(아이소이), (주)참든건강과학, (주)하츠/ (주)벽산 CNP코퍼레이션 (가나다 순)

후원 개인 | 고재환, 금교성, 김관상, 김명준, 김상근, 김상래, 김성렬, 김성은, 김시은, 김영훈, 김윤철, 김윤환, 김은선, 김재욱, 김주룡, 김지현, 김현모, 김형태, 김홍일, 김흥기, 남성태, 류지성, 박노석, 박미경, 박영철, 박재찬, 박준상, 박진규, 박진철, 박우빈, 박세용, 박홍래, 반기민, 배수정, 석승호, 송섭, 안정호, 안태근, 엄정석, 여삼열, 유성민, 유형창, 윤여민, 이덕희, 이만민, 이미경, 이병희, 이영선, 이완중, 이인성, 이정규, 이창준, 이준봉, 이현식, 이훈희, 임성빈, 임현주, 장명희, 장병우, 장우성, 장형철, 전치영, 정종섭, 정준, 정희수, 조용민, 조창오, 최상헌, 최준혁, 최은아, 함용태, 홍의숙, 홍혜숙(가나다순)

신규 후원 | 전용림

후원 방법

본 연구소는 주간리포트를 제작하여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에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100% 후원을 통해 운영됩니다. 이 사역에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소 후원은 공익재단을 통해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1. 기부금 영수증 발행 후원 계좌 및 안내 → [링크 클릭](#)
2.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필요하지 않으시다면 직접 계좌 송금으로 후원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 안내 : 하나은행 203-910046-18604(목회데이터연구소)

역대 [넘버즈] 주요 내용

1-68호

- 제 1호 | 인구 절벽, 그리고 개신교 인구 변화
- 제 2호 | 대한민국은 갈등 공화국(사회적 신뢰도, 갈등지수) | 종교 스위칭
- 제 3호 | 모바일 시대가 온다(개신교인 미디어 이용 실태) | 청년층 운세보기 | 황혼이혼
- 제 4호 | 나홀로 Life, 나는 혼자여도 좋다 | 함께 일하고 싶은 리더
- 제 5호 | 다문화 가족, 그들도 우리의 이웃이다(이주 여성 실태) | 북한 비핵화 인식
- 제 6호 | 위기의 기독교인 대학생(대학생 종교 실태) | 불법 촬영(몰카) 실태
- 제 7호 | 하루 13명, 술 때문에 죽는다(음주실태) | 청년 취업 실태
- 제 8호 | 여름휴가, 어떻게 보내십니까(교회 수련회 통계) | 남성 육아휴직
- 제 9호 | 유튜브 홀릭 | 한일 분쟁
- 제 10호 | 흡연, 성인 남성 하루 100명 죽는다, 55세 이상 고령층 취업 희망자
- 제 11호 | 기독교인 4명 중 1명, 교회 안 나간다, 한국인, 정신·심리 관련 조사
- 제 12호 | 북한이탈주민, 연 가구 소득 2,000만 원 미만 40%, 2019 대한민국 영향력 있는 인물 순위
- 제 13호 | 추석, 즐겁지만 여성에게는 힘든 명절, 89% | 2040 아바 육아경험, 고령화 통계
- 제 14호 | 한국인, 인간관계를 축소하고 있다 | 함께 출산율, 전국 초중생 방과후 학원 이용 실태
- 제 15호 | 한국인 행복도, '돈'에 과도하게 영향받고 있다 | 임금 근로자 연봉 상하위 격차 14.4배
- 제 16호 | 한국인 1일 37명 자살 | 우리나라 기부 참여율 40%(최근 1연간)
- 제 17호 | 장애인, 문화 활동 거의 못하고 있다 | 한국 부자 보고서 분석
- 제 18호 | 장애인 실태 2, '장애인 근로자, 고용 기업의 만족도 높다' | 미국 기독교인 의담임 목사 인식 조사, 한국 국가 경쟁력 순위
- 제 19호 | 한국 사회 혐오, 심각하다 96% | 100세 시대 인식조사
- 제 20호 | 특별판(1-19호) 종합 정리
- 제 21호 | 개신교인, 전광훈 목사 긍정적 평가 13% | 한국 사회 공정성 평가 조사
- 제 22호 | 당신은 '꼰대' 입니까? | 문재인 대통령 임기 반환점, 주요 여론조사 통계
- 제 23호 | 학벌 중심 사회, 국민 절반 가까이 학력 콤플렉스 '느낀 적 있다' | 평생직장 인식 변화, 우리나라 커피 소비 인식 조사 결과
- 제 24호 | 가족 호칭, '가부장 문화가 반영됐다' 72% | 한국인이 좋아하는 인물편(분야별)
- 제 25호 | 한국인의 결혼·가정관 빠르게 변하고 있다 | 한국인이 좋아하는 브랜드(일반 국민 vs 개신교인 비교), 우리 국민 절반은 '나는 가난하다' 생각한다)
- 제 26호 | 개취를 아십니까? | 전세계 기독교 청년의 교회 인식 조사, 한국인의 기대 수명
- 제 27호 | 한국인의 기부, 불투명성이 발목을 잡는다! | 2019 초중등 진로 교육 현황 조사 결과, 1인당 노동소득과 소비 간 비교
- 제 28호 | 2019 [넘버즈] Top 7
- 제 29호 | 2020년 1인 가구 대세 시대 | 미국 기독교인, 교회 출석 이유, '목사의 설교 내용' 절대적임 | 한국 사회, 빈익빈 부익부 현상 뚜렷하게 나타남
- 제 30호 | 50년 뒤 한국, '국민 2명 중 1명이 노인' | 한국인 새해 경기 및 실업률 전망, 작년 전국시도지사 직무 평가 결과
- 제 31호 | 어려울 때 가장 먼저 찾는 대상, '가족' | 2020 새해 목표, 성격 변화
- 제 32호 | 이제는 착한 소비의 시대! | 2019년 한국 파송 선교사 현황, 한국인 4명 중 1명 '사소한 일에 화가 난다'
- 제 33호 | 빅데이터로 본 2019 한국 교회 | 10대 청소년, 관심·흥미 주제 찾을 때, 유튜브가 압도적, 한국인 5명 중 1명 '종중 소외감을 느낀다'
- 제 34호 | 생활의 기쁨, 가족보다 '반려동물'에서 더 얻는다! | 코로나19 사태가 가져온 일상의 변화
- 제 35호 | 외로운 대한민국, 한국인 고독 지수 78점 | 밀레니얼 세대 직장인 분석
- 제 36호 | 코로나19 관련 개신교인 여론조사 결과 분석 | 코로나19 관련 국내 주요 신학교 권고의 글 모음
- 제 37호 | 가짜 뉴스, 심각하다 89% | 총선 40일 현재 국민 여론
- 제 38호 | 한국인, 부자가 가난한 자보다 오래 산다! | 우리나라 현황 통계 분석, 코로나19 이후 일상의 변화들
- 제 39호 | 한국인 정치 만족도 16% | 우리나라 대학생 81%, 고등학교는 사활을 건 전장, 미혼자, '주례 없는 결혼식' 선호도 67%
- 제 40호 | 악플도 범죄다, 65% | 코로나19 이후 마스크 5부제 찬성 68%

- 제 41호 | 성인 2명 중 1명, 사이버 폭력 '피해 경험 있다' | 우리 국민 필수와 선택
- 제 42호 | '코로나 19의 한국 교회 영향도 조사' 결과
- 제 43호 | 코로나19 이후 한국 사회 신뢰도 올랐다! | 40년간 국내 주요 물품/서비스 가격 변화, 한국인의 의심병
- 제 44호 | 한국의 여성 가사노동, 부담스럽다 57% | 코로나19 관련 미국 여론조사 분석 결과
- 제 45호 | 한국의 아동 행복도, OECD 최하위권! | 21대 총선 결과 분석
- 제 46호 | 한국의 부모, '다시 태어나도 내 자녀의 부모로 태어나고 싶다' 69% | 코로나19 관련 6개국 비교 조사 결과, 외모 성형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결과
- 제 47호 | 우리의 가난한 이웃, 한부모 가정 | 기혼자 30%, 불륜 경험 '있다', 트로트 매력 '친근한 멜로디' 32%
- 제 48호 | 우리들의 아버지, 대한민국의 퇴직자들의 삶 | 포스트 코로나 시대, 통계로 보는 언택트 사회 전망
- 제 49호 | 새로운 소모임 공동체 살롱 문화의 부활! |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 조사, 역사 왜곡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 제 50호 | 우리 사회 갑질, '심각하다' 86% | 코로나가 가져온 식품 소비의 변화, 미국 개신교인들의 목사 설교 시간에 대한 인식
- 제 51호 | 일반 국민, 온라인 종교 활동 '삶에 긍정적 변화다' 53% | 코로나 이후 직장인 점심식사 관련 인식 변화, 최근 10년 간 범죄 유형의 변화
- 제 52호 | 코로나19에 대한 목회자 인식 조사 결과(예장통합 교단)
- 제 53호 | 한국 교회 유튜브 최대 조회수는 '찬양 콘텐츠' | 한국인 5명 중 1명 '외롭다', 교회 학교 여름 사역 계획 조사
- 제 54호 | 한국 교회 리더십, 디지털 정보 격차 문제에 부딪히다! | 체벌하는 한국 부모, 72% | 올 여름 휴가, 코로나19로 인해 '안전한 바캉스 선택' 64%
- 제 55호 | 한국 개신교, '가족 종교화' 되고 있다! | 코로나19 확진자, '아무런 증상 없었다' 36%
- 제 56호 | 우후죽순 '○○데이' 문화, '소통의 계기가 된다' 50% | 서울 초중고학생, '사교육 받고 있다' 78%, 레깅스, '최근 한 달간 입은 적 있다' 37%, 내년 최저임금, '8,720원'
- 제 57호 | 직장 내 성희롱 실태, '지방 자치 단체'가 가장 심각! | 한국인, '뉴스 신뢰도' 세계 40개국 중 최하위, 청년층(19-34세), 혼자 살고 있는 '1인 가구'는 5명 중 1명 꼴(19%)
- 제 58호 | [미래 종교] 2070년 이후 이슬람교가 기독교를 제치고 세계 종교 1위로 부상! | 미국, 매주 교회 가던 개신교인 3명 중 1명, 코로나19로 인해 '교회 안 간다'
- 제 59호 | '국민 절반(48%), 코로나 블루 상태에 놓여 있다' | 밀레니얼 세대, '집 사기 위해 돈 모은다' 61%, 원격 수업, '학습 부진아 지도 안 된다' '초등 교사' 73%, '중·고등 교사' 75%
- 제 60호 | 밀레니얼 세대, 그들은 누구인가? '밀레니얼 세대의 관계 핵심은 취향이다' | 보이스피싱 피해 실태, 대통령 지지도 하락 요인 분석
- 제 61호 | 코로나19 이후 개신교인을 바라보는 일반 국민의 시선, '거리를 두고 싶은', '사기꾼 같은' | 코로나19 이후, '체중 증가했다'
- 제 62호 | 한국인의 환경 문제 인식 '과거보다 현재 더 나빠졌고, 미래는 현재보다 더 나빠질 것' | 올해 2사분기 합계출산율, '0.84명으로 역대 최저!'
- 제 63호 | 대학생 거의 절반인 44%, '생활 속 무력감' 느껴 | 정당 지지도 기반 유권자 분석,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미래통합당)'보다 핵심 지지층이 더 많아!
- 제 64호 | 한국인의 일상생활, 코로나19 이전 대비 44% 수준으로 위축된 삶 살고 있다! | 올 추석에 어른께 가장 듣고 싶은 말, '추석에 안 와도 된다' 46% | '동영상 플랫폼' 이용률, '10대' 청소년이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다(87%)
- 제 65호 | 택배 노동자의 하루, '12시간 노동, 점심시간 12분, 2분 50초마다 1개 물량 처리' | 한국, 8월말 기준 OECD 국가 중 경제와 코로나19 방역 양쪽 모두 1위 | 방탄소년단 빌보드 차트 1위, 경제적 효과로 1조 7천억 원 규모! | 우리 국민 추석, '부담/염려 더 큼' 60%
- 제 66호 | 비대면 시대, 교회의 공동체성은 소그룹 활동에 달려있다! | 한국인의 91%, '현재 고민거리 갖고 있다!'
- 제 67호 | 교인 수 50명 이하 교회가 전체 교회의 절반 차지 | 코로나19 우울증 진단, 20대 여성 전년 대비 38% 증가, 코로나19 이후 화상회의 앱 '줌'(ZOOM) 이용자, 9월 한 달간 707 만 명으로 역대 최대!
- 제 68호 | 트로트 전성시대! | 코로나19 이후 한국인 생활의 변화 '체중 증가/운동량 감소', 가장 신뢰하는 언론 매체, '유튜브' 1위

역대 [넘버즈] 주요 내용

69호-88호

- 제 69호** | 교회 출석자 중 코로나19 이후, '아예 주일 예배 드리지 않은 개신교인' 증가세! | 전 세계 국민의 86%, 세계가 코로나19 이전으로 복귀하는 것보다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세상으로 크게 변화하기를 원해! | 미국인, 한국인에 대한 호감도 역대 가장 높아!
- 제 70호** | 한국 개신교인의 '공교회 인지도', 19%만 공교회 내용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어! | 우리나라 임상 의사수, 인구 1,000명 당 2.4명으로 OECD 31개국 중 29로 최 하위권
- 제 71호** | 대한민국 불법 도박, 연간 81.5조 원의 대규모로 은밀히 행해지고 있어! | 2020년 신규 주식 계좌 연령, '2030세대' 57% 차지!
- 제 72호** | 남성 육아, 우리 국민의 절대 다수(89%) '필요하다' | '코로나 불안도' 61%, 올해 들어 최고 수준의 불안감 보임
- 제 73호** | 우리 국민, '비혼 출산 찬성' 31%, '비혼 동거 찬성' 60% | 올해 한국인, 작년보다 '신체-정신 건강 모두 나빠졌다!' | 조직의 리더로 갖추어야 할 조건과 자질 1위, '책임감' 54%
- 제 74호** | 한국인의 웰다잉(Well Dying), '나를 사랑하는 사람 옆에서 죽고 싶다' 85% | 종교를 믿는 긍정적 효과, '긍정적 감정, 윤리적 행동, 올바른 가치관' | 서울시 1인 가구, 50대 이후 행복도 급격하게 떨어짐
- 제 75호** | 한국인의 웰다잉(Well Dying), '나를 사랑하는 사람 옆에서 죽고 싶다' 85% | 종교를 믿는 긍정적 효과, '긍정적 감정, 윤리적 행동, 올바른 가치관' | 서울시 1인 가구, 50대 이후 행복도 급격하게 떨어짐
- 제 76호** | 국내 기업 2개 중 1개 재택 근무 실시 → '코로나19가 기업 문화를 바꾼다! |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수명 83.3세, 전년 대비 0.6세 증가 | 한국인 45세 때 1,484만 원으로 최대 흑자, 59세부터 적자 인생으로 전환
- 제 77호** | 코로나19 시대, 기부 금액 감소 기부 중단율 높아져! | 코로나 크리스마스, 미국인 4명 중 1명 '작년보다 성탄절 예배 참석 줄일 것' | 성인 남녀 10명 중 9명, '송년 모임 취소했다'
- 제 78호** | 2020년 넘버즈 Top 8
- 제 79호** | 올해 말 자영업자 25만 가구 현금 바닥 예상(유동성 위기)! | 신년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대선 후보 지지도 평균(전화면접 조사 기준), '이재명' 23%, '이낙연' 17%, '윤석열' 17% | 코로나 장기화로 코로나블루 상승, 전국민 62% '우울하다'
- 제 80호** | 전국의 아동 학대, 13분마다 1건씩 신고되고 있어! | 1월 초, 국민이 생각하는 일상 회복 수준, '코로나 이전의 40% 수준'
- 제 81호** | 빅데이터로 본 2020년 한국 교회 4대 이슈 | 2020년 상위 20% 가구 순자산, 하위 20%의 '167배!' | 60대 이상 고령층, 10명 중 3명만 '건강 상태 좋다'
- 제 82호** | '지난 1년간 코로나19를 겪으면서, 한국 교회 신뢰도 32%에서 21%로 급락' | 국민의 절대 다수(90%), '우리 사회 갈등 심각하다'
- 제 83호** | '기독교 청년 4명 중 1명 이상, '자살을 심각하게 생각해본 적 있다' | 내가 만약 부모를 선택할 수 있다면, 가난하지만 존경받는 부모, 65%
- 제 84호** | 현재 교회 출석 청년 3명 중 1명 이상, '10년 후 교회 안 나갈 것 같다!' | 일반 국민 '최근 2주간 자살 생각한 적 있다' 13% → 코로나19 이후 증가세!, 매주 예배하는 미국인, 미국 내 모든 집단을 통틀어 '정신 건강'이 가장 우수!
- 제 85호** | 코로나 이후 새로운 트렌드, '집콕' | 향후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세계적 위험 요인 1위, '극단적 이상 기후' | 2019년 종교인 월 평균 소득 155만 원, '같은 해 최저임금보다 적어'
- 제 86호** | "코치님이 나무베트로 허벅지 안쪽을 때렸는데 부모님이 그걸 보고 우셨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소프트볼 선수) | 초등학교 장래 희망 직업, 코로나19 이후 '의사', 4위에서 2위로 상승 | 2020년 연간 종교 단체 헌금, '2019년보다 13% 줄었다!'
- 제 87호** | 현대인, 일주일에 신용카드 1장 꼴로 '미세플라스틱' 먹고 있다! | 유튜브가 가장 크게 영향 미치는 그룹, '초등학생' 95% | 우리나라 대도시 거주 40대, '총 자산 평균 4억 천만 원!'
- 제 88호** | 2030세대, '내 인생 목표는 물질적으로 풍족해지는 것이다' 72%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부담감, 50대 연령층이 가장 크게 느껴

목회데이터연구소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8길 17 현빌딩 2층

미션

우리는 세상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슈, 사고방식, 그리고 트렌드를 한국 교회 목회자와 리더십에게 알리는 '정치 중립/가치 중립의 공정한 팩트 탱크'로서, 사회 여론 조사, 공공 통계 등 데이터 기반의 통계 자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교회-사회의 대화와 소통을 풍요롭게 하고 더욱 견고하고 온전한 의사 결정을 위해 '사실'에 입각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협력 기관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재) CBS
(재) 한빛누리
한국 교회탐구센터

섬기는 이들

김지철 목사 | 운영위원장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이사장)
류영모 목사 | 후원이사회 회장(한소망교회 담임목사)
신원하 교수 | 연구자문위원장(고려신학대학원 원장)

만든 이들

지용근 | 목회데이터연구소 대표 | ykji@mhdata.or.kr
김진양 | 목회데이터연구소 부대표 | marpro@mhdata.or.kr
김준영 | 목회데이터연구소 실장 | jy0113@mhdata.or.kr
박태영 | 목회데이터연구소 간사 | mhdata@mhdata.or.kr

MOU 기관 | (사)교회성장연구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교통일지도자훈련센터(숭실대학교), 기아대책,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교단총회, 마크로밀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문화선교연구원,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아드폰테스,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한목협), 햇불회